

볼리비아,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 당선

□ 로사다 대통령 후보,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

- 볼리비아 의회는 지난 8월 4일,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을 5년 임기의 제65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음.
- 지난 6월 30일 11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볼리비아 대선에서 민족주의 혁명운동당(MNR)의 로사다 후보는 총 유효득표 중 22.5%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, 과반수 득표에 크게 못 미쳐 의회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했음.
- 상원(30석)과 하원(127석) 중 80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결선투표에서 로사다 후보는 시민연합(UCS), 민족주의 민주행동당(ADN) 등과 연합하여, 인디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출마한 사회주의 운동당(MAS)의 모랄레스 후보를 84 : 43의 압도적인 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.
- 신 자유주의자이며 친미 보수성향의 로사다 신임대통령은 현재 볼리비아 최대의 광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서, 이미 상원의장, 기획조정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쳐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볼리비아 대통령직을 수행한 적이 있음.
- 그는 지난 집권기간 동안 다수의 경제개혁 정책과 민영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로 평균 4.5%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음.

□ 향후 전망

- 로사다 대통령은 지난 재임기간 중 이룩한 경제성과를 강조하며, 실업률 축소, 빈곤 타파, 인플레이 방지 등을 자신하고 있음. 그러나,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IMF 합의치¹⁾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공지출확대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 지에 외부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- 아울러, 시장경제주의자인 로사다 정부가 금번 대선 승리를 위해 좌파인 좌익혁명 운동당(MIR)과 연합함에 따라, 일관적인 정책수립에 난항이 예상되고, 인디오 대변 정당들이 전체의석의 25%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함에 따라, 인디오 등 하층민의 지지기반이 약한 집권당(MNR)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.
- 한편, 2002년 볼리비아 경제는 유사 이래 최대의 외국인투자사업(60억 달러 규모)인 '남부지방 천연가스 개발사업'이 진전을 보임과 동시에 브라질, 아르헨티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, 미국의 안데안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법(Andean Trade Preferences Act : ATPA) 승인에 따라 의류, 목재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남미지역 경제불안 양상에도 불구하고 2%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
전문연구원 최성규 (☎3779-6665)
E-mail : ppio93@koreaexim.go.kr

1) 2001년 볼리비아 정부는 IMF와 재정수지 -3.7%에 합의하였지만 결국 이에 크게 못 미친 -5%를 기록하는데 그쳤음. 2002년에도 신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목표치 -5.7%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.